

# 무안군, 국내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와 구매 약정 체결

### 주)여주농산과 무안 쌀 180만포 구매 약정



무안군은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국내 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인 주)여주농산과 4년간 1,000억 원 규모의 무안 쌀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약정식은 무안군 김산 군수와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전남도의회 나광국·이해자 의원 등이 참석하여 무안군과 전라남도가 무안 쌀의 판매를 지원하고 농협양곡(주)무안지사가 공급을 책임지며 주)여주농산이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의 4자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주)여주농산(대표 전오수)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며 쌀, 잡곡 등 곡물을 판매하여 연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로 올해부터 4년간 무안 쌀 약 4만 톤을 구매하여 전국에 판매하게 된다.

무안군은 전체 경지 2만ha 중 8천ha에서 7천여 농민이 벼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쌀 생산의 중심 지역이

다. 무농약 1천9백ha, 유기 3백ha 등 전체 경지의 11%인 2천2백ha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무안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무안 쌀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논에서 신선한 해풍과 맑은 물로 재배하고 단백질 검사 등으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어 영양은 물론이고 맛까지 좋은 쌀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쌀 '러브미(미)' 인증 2회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12회 선정된 농협양곡(주)무안지사의 '황토랑쌀'을 비롯해 3개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4개 업체에서 23개 브랜드로 판매하는 무안 쌀은 친환경 고품질 쌀로 평가받으며 전국 소비자의 반상에 오르고 있다.

이번 구매약정은 쌀이 매년 수확기의 생산량에 따라 값이 형성되고 풍년인 해는 쌀값이 매년 폭락하는 불안정한 우리나라 쌀 시장을 고려해 무안 쌀이 안정된 판로로 제값을 받으며 판매될 기회를 무안군과 전라남도가 함께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더 높게 평가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 '흑산성당' 문화재 등록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의 흑산성당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등록문화재 제759호로 등록된 '신안 흑산성당'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자리한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자, 선교 및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낙후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던 점에서 종교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이다.

또한 섬에서 구한 물품을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독특하게 구성된 정면 중앙부 석조 종탑 등은 건축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흑산도는 일찍이 한국 천주교 창설

의 일원이었던 정약전(丁若鎭)이 신유박해(辛酉迫害)로 1801년 유배 온 섬이었으며, 이곳에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851년 흑산면의 장도에 공소가 건립되면서 부터다. 1956년 심리, 1957년 사리에 공소가 건립되는 등 흑산도의 천주교세가 빠르게 확장됨에 따라 북포 산정동 본당은 브라질(S. Brazil, 진)신부를 파견해 1957년 흑산면 진리에 부지를 마련하고 1958년 11월 현 흑산성당을 건립했다.

흑산성당은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분명을 겪어야 했던 흑산도 주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의 공급과 의료 활동, 그리고 성모중학교를 건립하는



등 흑산도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군은 흑산성당의 문화재등록을 계기로 섬 지역에 남아있는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전 및 활용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목포시, 감염병 예방 집중 방역활동 돌입

목포시는 해상계이불카 개통을 앞두고 8월부터 집중 방역활동을 돌입한다.

시는 최근 잦은 우가와 병행한 고온 다습한 환경여건에 따라 위생해충 방제와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6일 방역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방역소독

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각종 모기 방제를 위한 전담교육으로, 하절기 방역활동의 안전교육과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전산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인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방역관련 데이터와 지리정보를 전산화로 구축해 방역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소독

지역의 정보, 질병매개체 발생내역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25개반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쓰레기 처리장 등 방역취약지 315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원지 등의 풀베기 사업과 하천 정비 작업 직후 방역소독 병행으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영암군 보건소,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영암군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간 5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

을 대상으로 올바른 복용지도 및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자와 복합질환자의 급증으로 약물복용량 증가에 따른 약물중독 과다투여 등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보건소와 의약품 전문지식이 풍부한 영암군약사회가 함께 경로당 등 현장을 방문해 약물 복용지도 및 안전상비약품 바로알고 사용하기, 긴 강 기초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예방교육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까운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로 반납해 줄 것 또한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강진군 다양한 연근 가공식품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청정지역 강진군에서 자란 연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추석명절 선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물 속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연근은 다량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은 뿌리채소이다.

강진군은 연근을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재배기

술 보급, 유통망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진 성전면 월평리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 느린근(주)는 연근을 이용한 연근 가루, 연꽃잎차, 연근 떡국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강진의 자랑인 고려청자 모양과 빛깔의 연잎 전병을 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느린근(주)는 강진 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꽃 특유의 은은한 향과 피부미용에 좋은 성분을 활용해 향수, 비누, 팩 등 미용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 연근제품 구입 및 관련 정보 문의는 농업회사법인 느린근(주) 061-434-0434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전복 유통사업 지원 확대

진도군이 전복 출하시기에 맞춰 전복 유통사업 지원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전복 판매단가와 판매량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어민전복(치패)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고품질 진도전복 생산과 판매단가 유지, 전복 유통 등 전복산업 육성을 위해 ▲ICT 기반 육상 순환여과식 전복 양식장(1개소, 50억원) ▲전복 가두리 시설 현대화 ▲어민전복(치패) 방류 ▲물류집하장(이게장) 등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복 가격 하락과 내수 약화로

인해 침체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퇴적층조사, 심사비용 등 전복 ASC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내 전복유통업체인 ▲더 좋은 전복(대표 김중수) ▲어업회사 진흥 전복유통(대표 진용수) ▲싱싱한전복영어조합법인(대표 허신환) 등 유통업체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인 보협회사에 전복 5.5톤을 납품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4월 23일 개막

완도군이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일정을 당초보다 일주일 늦춰 4월 23일 개막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2021년 박람회를 4월 16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은 세월호 7주기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주일 늦춰 개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박람회는 4월 14일 개막했으며 세월호 3주기는 4월 16일에는 이벤트 행사를 자체하고 추모 행사로 대체하여 운영한 바 있다.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전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개최하며 2014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국제 행사로 개최하게

됐다.

해조류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완도항 해변공원 일원과 명사십리 해수욕장 부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박람회는 해조류를 소재로 해양바이오헬스, 의약, 뷰티, 환경 에너지 등 4차 산업을 융·복합 발전시켜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